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사람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제심만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사랑에 빛진 자로
모입니다.

얇은 소망 하나를 심중에 남겨 놓고

신 윤 식

가리를 걷다 보면
바빠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니
사람도 바람이구나.

발자국 소리 점차 멀어지고
너는 내대로 나는 내대로
언젠가는 발자국 소리 끊어질 때 있으니
잠시 머물다가는 삶이어라

찬바람 못 이겨 떨어진 나뭇잎
잠시 서서 바라보노라면 알게 된다.
인생은 낙엽이라는 것
그냥 뜨내기라는 것

잠시 있었다가 떠나는 세상
있다가 사라지는 목숨들을 보면
세상과 인생을 알 수 있으니
얇은 소망 하나를 내 심중에 남겨 놓고
소망 하나로 내 마음 머물어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23

발행호수 제19권 4호

교회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용납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이고 희미하게나마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해 오해를 갖게 하면서 잘못된 천국을 상상하게 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령 교회가 천국의 상급을 말하면서 신자가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결산하시는데, 선하게 살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되 그 정도에 따라 상을 다르게 주시고, 반대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고 가르친다면 이러한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선하게 살고 교회 일에 충성하면 가는 곳이고, 많이 충성하면 많이 충성할수록 상도 많이 받는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과연 예수님의 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과 상관 없는 인간이 만든 천국 아닌 다른 천국 하나를 상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고 손을 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인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박수로 환영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천국을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곳으로 오해하게 할 뿐입니다.

또한 교회가 직분의 등급을 나누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천국 또한 차별적인 등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도 합니다. 이 외에도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을 방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현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다만 개 교회의 성장과 잘됨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주일오전설교
마 19:13-15

천국과 아이

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교회 또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이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 또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천국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은 문제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에 의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천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원칙 위에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후 떠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 18:3절에서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각기 다릅니다.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고, 본문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을 꾸짖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천국을 큰 자 작은 자, 즉 높고 낮음이라는 등급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각기 한 일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한 제자가 있고 하지 못한 제자가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적게 수고한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18장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자신의 한 일을 기준으로 크고 작음이라는 구분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한 일을 내세워서 크고 작음이라는 차별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살고 있음을 믿는 신자에게만 허용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배경이 18장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가 아이에게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안수 받고 기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하늘의 복은 아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는 아이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율법의 세계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은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아이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 세계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일뿐이고 아이들은 그저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가 예수님에게 안수 받고 기도 받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린아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아이들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것이고 또한 그런 수준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여전히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린아이를 의미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과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율법적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안수 받고 기도를 받을만한 일을 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안수 받고 기도 받는 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분명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통로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 또한 그러한 의식을 토대로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음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실천과 공로까지도 모두 덮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신자는 어린아子和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 일이라며 내놓을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자연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때문에 내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가며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있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도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 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사고방식으로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사고방식으로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면 천국가고, 더군다나 큰 상까지 받는다고 우리 멋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다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주시고 기도해주심을 바라는 마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의 복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것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싶고 힘 있는 자 되고 싶은 어른의 욕망에 붙들려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말하는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온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온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천국으로부터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온통 어른으로 만들면서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옥이 돼 버렸습니다. 결국 그러한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내 놓을 것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 곳이 없는 자로 치부 받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것처럼 목사들은 교회에 별 도움이 안되는 교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나오라고 다그칩니다. 천국이 약자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강자가 우대 받는 나라는 오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강자가 우대를 받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항상 꾸짖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약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천국이 용납할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천국 개념을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뜻 말고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신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만 하늘의 복만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주일오우설교

행 2:1-4

성령 강림

(성령2강 19 설교)

예 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과는 다르게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을 가볍게 다루게 된 이유는 아마 성령을 체험과 능력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성령의 오심을 방언하게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며, 믿음에 힘을 주어서 좀 더 열심을 내도록 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비해 성령의 오심은 가볍게 치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에 대한 큰 오해일 뿐입니다.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당시 마가의 다락에 있던 120명의 신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 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강림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신자가 성령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야 하고 체험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지금도 성령을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임해야 하고, 특히 성령 받을 때 있었던 방언을 할 수 있어야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 본문과 동일한 체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령 받은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체험이 있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없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임하는 것은 성령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될 수 없는 것이지만 방언은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받음의 증거로써 계속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오심과 함께 방언의 증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한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혀 꼬인 이상한 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지 몇 마디의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방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등장한 방언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성령이 오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불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것은 나뉘진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사람은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은 확정되게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강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건지실 것임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4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방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을 지금 대할 수가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그 말을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모두에게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방언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언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인류는 모두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탑을 쌓아 흠어

짐을 면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인간의 힘을 모아 스스로 자신들을 보존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고, 하나님은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흠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언어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을 알아들었다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됩니다. 특정 국가의 말을 다른 나라의 사람이 모두 알아듣는 것은, 현대 문명에서도 동시통역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언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내용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나와 너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 받은 신자에게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고 받아들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로 인해 혼잡하고 나뉘게 된 세상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관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이며 방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은 말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고 그 말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고, 자신을 높이고 내세울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참된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이 반대한 사람을 좇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며 불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러한 갈등과 혼란까지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의 세계에 끝까지 붙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방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타인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가 있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났다는 사실로 수치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죄가 있는 자신을 수치스러워 한다면 타인

수요일설교

습 3:1-8

수치를 알자

(4장 1.12일 설교)

이 자신의 죄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착한 일도 자신을 죄 없는 깨끗한 자로 만들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도둑질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행위적인 면에서 본다면 살인죄와 도둑질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각기 다른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을 따지게 되면 결국 모두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의 본질이 탐욕이고, 살인의 본질이 미움이고 분노라고 한다면 탐욕이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롬 1:32절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급하는데 그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 등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성경은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악인이라고 할 때, 악인이라는 말이 사실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한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우리에게 가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고 말합니다.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집결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백성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다른 성보다 더 신앙적인 면에서 뛰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와 장로, 신학박사,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성이라면 다른 성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3,4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백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귀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자기 탐욕을 위해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방백부터 제사장까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럽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를 살피본다면 우리 역시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탐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패역과 포악과 더러움에 해당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그와 같다면 동일하게 패역과 포악과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 모든 것 역시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심각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패역이나 포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 수군거리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패역하다 하고 포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인식만 강합니다.

5절을 보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고 말합니다.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아침마다 자기 공의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서게 되면 자기 수치를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 것 없으며, 인간의 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는 패역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7절)고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형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벌을 정하기는 하셨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자가 자기 수치를 알고, 자신에게 정해진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있게 됩니다. 형벌이 당연한 자신을 건지시고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 복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를 알고 자신의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5장
교 독 : 7(시13)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92장
성 경 : 마 19:13-15
말 씬 : 천국과 아이(12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53장
기 도 : 김현동 집사
찬 송 : 529장
성 경 : 행 19:1-7
말 씬 : 성령을 받았느냐(성령 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8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학개 강해(1강)

■ 교회소식 ■

- 2월 13일 주일 오전예배 후에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 2010년 마데테스 합본이 발행되었습니다. 권당 10,000원입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이영민 장로 오후 송수경 집사

좀 더 솔직해지자 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조그만 도시에서는 20평 아파트를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몇 억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6,7억을 호가한 곳도 있다. 심지어는 10평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0평짜리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집 내부를 금으로 도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10억이라는 가치와 등급이 매겨지는 것인가? 아파트가 세워진 땅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20평이 6,7억이든, 10평이 10억이든 아파트가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면 전혀 아니다. 결국 실제 하지 않은 가치와 등급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 하지 않은 가치와 등급에 끌려 다닌다. 나의 계산으로는 10억을 주고 10평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6억을 주고 20평 아파트에 사는 것이 더 이득이다. 물론 주거 환경과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10평 아파트가 10억이 되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다. 그런데도 사람으로 하여금 10억을 주고 10평 아파트를 선택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구로 가고 강남구에서도 또 특정 동을 선호하고 찾아간다. 그곳에 등지를 틀기 위해서 10평 아파트를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사기도 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쩔 수 없이 낮은 등급의 지역에 등지를 틀수밖에 없다. 그리고 높은 등급의 지역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자신 역시 그만큼 가치와 등급을 가진 인간이 된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 도대체 이 무슨 시답지 않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마음을 비우면 시답지 않은 하찮은 것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 형성된 가치와 등급에 끌려 다닌다. 싼 것은 가치가 낮고 비싼 것은 가치가 높다는 자본주의적 인식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등급에 우리 역시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 6:28-29)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도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당시 제일가는 부를 누린 사람이다. 부와 권력을 모두 차지한 사람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추월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등급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